

단위주거 내 사회적 행위 조절에 대응하는 공간구성 요소

전 남 일*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전임강사)

주거사회학의 관점에서 주거공간을 연구하는 것은 공간의 적정 규모, 기능, 밀도 등의 정량적 요인보다 거주원간의 사회적 관계 및 행위패턴에 더욱 주목한다. 특히 미시적 관점에서의 주거 내적 사회학(wohnungsintern)은 단위주거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를 이루며, 문화적 현상으로써 항상 유동성을 갖고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의 출발선상에 있는 Silberman(1963)과 Schmidt- Relenberg(1969)의 사회학적 기본 개념을 확충하여, 거주자의 사회적 속성에 연관된 구체적인 공간요소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사회적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계획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주거 내 형성되는 사회적 행위들을 첫째, 개별 거주자들간의 교류, 둘째, 세대간의 접촉, 셋째, 여성의 위상, 넷째, 외부사회와의 관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국 도시주거의 대표적 유형인 아파트 중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입주된 120개 단지의 평면을 수집하여 이 곳의 87,289 세대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8개의 단위주거 평면형을 선정한 후, 이들을 4개의 Criteria 별로 내부공간의 동선 및 시각적 접촉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 평면형에서의 접촉, 교류, 고립, 방해, 단절 등의 사회적 행위의 조절 정도를 추정한 후 이들 행위를 통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때 주거공간 내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공간구성 요소는 거실, 식사공간, 부엌 등 주거 내 공적공간의 상호 개방과 폐쇄, 그리고 각 개실과 공적공간, 개실과 현관공간을 연결하는 통과공간의 구성, 각 개실 출입구의 위치, 식탁의 위치 변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거주자의 단위주거공간 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요소들의 리스트를 각 Criteria별로 작성하고, 공간 Scheme을 제시하였다. 각 리스트에서는 거주자의 사회적 행위를 '개별 거주자들간의 교류'의 경우 분리지향적 성향과 공동체지향적 성향, '세대간의 접촉'의 경우 사생활보장적 성향과 접촉유도적 성향, '여성의 위상'의 경우 고립적 성향과 교류적 성향, '외부사회와의 관계'의 경우 체면지향적 성향과 가족생활위주의 성향으로 명명하고 이 양 극단적 단계 사이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한 후 각 상황에 요구되는 공간구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거주자의 다양한 사회적 속성 및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단위주거 평면의 계획에 이러한 공간구성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평면설계 과정에서 구조 요소와 공간구획 요소의 적절한 분리, 고정된 개인공간과 융통성 있는 오픈플랜으로서의 공적공간의 분리, 공적공간의 적절한 면적, 경우에 따라 통로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여지 등을 제안함으로써 주거사회학의 이론적 개념을 구체적 공간계획에 적용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